

이수지 작가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수상

한국인 사상 최초...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선정 '여름이 온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등 집필

덴마크가 낳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1805-1875)은 아동문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별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등은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안데르센이 사망했을 당시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질 만큼 그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그를 기리기 위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이하 안데르센상)이 제정돼 2년마다 세계의 작가(글작가 1명, 그림책작가(일러스트레이터) 1명)들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상은 '아동문학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에서 선정한다.

한국 작가가 사상 첫 안데르센상을 수상해 화제다. 주인공은 이수지 작가.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개막 기자회견에서 이수지 작가를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작가가 이 부문 수상을 한 것은 지난 1984년 일본 안노 미쓰마사 이후 38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안데르센상 수상자를 배출한 28번째 국가가 됐다고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가 전했다.

이에 앞서 이 작가는 지난해 '여름이 온다'로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문 '스페셜 멘션'(우수상)에 선정돼 눈길을 끈 바 있

다. 또한 '토끼들의 복수'로 '스위스의 가장 아름다운 책'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6년에도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당초 안데르센상은 글 작가에게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일러스트레이터 부문이 신설됐다. 각각 안데르센 위원회에서 자국 대표 작가를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에 추천하면 심사위원 10명이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뽑는다.

특히 지금까지 창작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상보다 권위가 높다. 심사위원들은 문학 적 성취와 작품의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지금까지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면모는 화려하다. 에리히 캐스트너, 모리스 센닥,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앤서니 브라운, 지아니 로다리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이 선정됐다.

올해는 32개국에서 모두 62명이 등록했으며 지난 달 6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 작가와 경쟁했던 후보들은 일본 아라이 료지, 폴란드 이보나 히미엘레프스카, 이탈리아 베아트리지 알레마나, 아르헨티나 고스티 작가 등이다.

이 작가의 대표작 '여름이 온다'는 음악과 그림, 이야기를 결합한 그림책이다.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과 함께 들었던 비발디의 '사계'를 모티브로 한다. 아이들의 귀로 들어보고 이미지를 떠올려 본 것이 책의 시작이라고 한다. '사계' 중 '여름'의 흐름을 따라 3악장으로 분류되는데 장마다 기법이 달라 다채롭고 입체적인 이미지와 감흥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글 대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선과 면, 색의 조화는 시각적 몰입도를 높인다. 또한 스페인, 프랑스 등 5개국에 판권이



판매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2002)부터 아이의 현실과 환상 세계를 책의 물성을 토대로 꾸준히 탐구한 작가라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 등 보편적 주제를 다뤄 그림책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이 작가를 소개했다.

지난 1996년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2001년 영국 캠버웰예술대에서 북아트 석사과정을 밟은 뒤 그림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며 안데르센상 수상의 가능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직접 쓰고 그린 책으로 '겨울속으로', '파도가 놀자', '그림자놀이' 등이 있으며 그린 책은 '물이 되는 꿈', '이렇게 멋진 날' 등이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부터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열리는 제38차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국제총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치→파오차이' 추자현, 표기 논란 사과

배우 추자현(사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치를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 (泡菜-중국 절임 채소)로 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추자현은 22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평소 한국과 중국 활동을 병행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두고 주의를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추자현은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 라면과 김치를 먹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올렸으며, 이 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다. 이 영상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연예인들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실수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알려졌고, 네티즌들의 못마땅한 반응을 받기도 했다.

추자현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고민하며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법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김치와 파오차이의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작년 7월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이후 신치(辛奇)로 표준화해 명시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치가 아직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무엇보다 이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들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고유 음식의 이름을 바로 알고 사용하며 올바른 표현이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삶에서 녹여낸 응축된 공통분모 '인간에'

광주문인협회장 역임 신현영 시인 두번째 시집 '국립묘지' 발간



모든 시는 인간을 담고 있다. 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모든 인간은 한 편의 시와도 같다.

문병란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신현영 시인이 두번째 시집 '국립묘지' (한림)를 펴냈다.

'남산 가는 길', '풍장 여행', '일주문', '운주사', '선운사 동백꽃', '초생달', '땅끝' 등 모두 80여 편의 시는 대부분 '인간'으로 수렴된다. 문인호 평론가의 표현대로 "삶에서 녹여낸 응축된 공통분모로서 '인간에'가 이번 작품집이 지향하는 주제다."

인간의 삶과 모습, 인간의 정서와 감성 등이 모두 인간으로 수렴된다는 것은 시인이 추구하는 문학세계를 보여준다. 군소리를 모두 걸러낸 작품은 특유의 울림을 낳는다. 삶을 오래 관조한, 시난고난한 여러 경험을 통과한 이에게서 나오는 여백의 미와 단상을 엿보게 한다.

"물으로/ 육망을 밀 듯이// 바다는 늘 그랬다// 땅끝/ 각질을 갈아내듯// 바다는 늘 그랬다"

작품 '땅끝'은 어떤 말도 빠지도 더하지도 않는 예

센스만을 배열했다.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땅끝'의 이미지와 풍경이 환기된다. 바다는 육망을 밀듯이 물으로 다가오지만 한편으론 각질을 갈아내겠다는 표현은 오래 인생을 산 이의 사유에서 나오는 절정이다.

시인의 대부분의 시에서 발현하는 압축과 정제미는 오늘의 현란한 기교와 무수한 언어의 남발로 이루어진 시에서는 볼 수 없는 미려한 감성을 선사한다.

문인호 평론가는 발문에서 "사고의 폭이 넓어와 이해의 깊이까지 다 가졌으니 그의 시 또한 모두 육십난다"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헛튼 소리가 아닌 의미를 지니고 있느니, 이 의미들이 다 새겨본다면 그의 시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평한다.

한편 신현영 시인은 1996년 '문예연구'로 등단했으며 광주문인협회, 무등문화회, 곡성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와대 사람들' 5월 공개

차인표 주연 정치풍자 시트콤



콘텐츠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정치풍자 시트콤 '청와대 사람들'을 오는 5월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청와대 사람들'은 청와대를 배경으로 임기 말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차인표는 대통령 고한표를, 예지원은 영부인을 연기한다. 이외에도 권소현, 윤병희, 금세록, 정승인, 정상훈, 이상희, 방주환, 차선형, 홍예지 등이 출연한다.

총 10화로 제작된 '청와대 사람들'은 'SNL 코리아'의 안상휘 CP와 'YG전자'의 김민석 작가가 집필했으며, 영화 '오케이 마담'의 이철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에이스토리는 청와대 본관은 물론 영빈관, 수궁터, 상춘재 등의 세트장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제20대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옮김에 따라 '청와대 사람들'에 본의 아니게 다큐멘터리가 가미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람들' 공개 채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